

# 영국 학교의 교실 이동 수업

## How British Schools have Their Lessons in Different Classrooms to Achieve Lesson Objectives

김 은 영\*  
Kim, Eun-Young

보조교사 시절을 시작으로 영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이제 만으로 4년이 됐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를 포함, 실습하는 동안 있었던 학교들, 아니면 면접이나 외부 세미나 때문에 가본 영국의 학교들이 5군데인데 대부분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있는 학교는 약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80년 전 한 개의 건물로 시작된 학교는 점점 커져서 현재 1,200명의 학생과 100명의 교직원이 20여 개의 크고 작은 건물에서 생활한다.

### 1. 교실의 구성

영국은 매 과목 시간마다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한국처럼 큰 교무실이 따로 없고, 과목별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작은 사무실이 있다. 그리고 교실들은 당연히 이 사무실 근처에 배치되어 있다. 수학(maths) 같은 경우, M1, M2 이런식으로 붙여진 교실이 8개 있고, 그 중 두 개의 교실은 컴퓨터가 32대(우리 학교의 교실 최대 정원은 32명이다.) 설치되어 있는 교실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이주에 한번은 컴퓨터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한다. 교실에는 불박이장 같은 게 있어서, 교과서, 그래프용지, 노트, 자, 컴퍼스, 각도기, 전자계산기, 가위 등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과학과는 따로 건물이 있고 거기에 9개의 실험실이 들어가 있다. 실험실 책상마다 가스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알코올램프를 쓰지 않고 실험용 가스버너를 쓴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개수대가 적어도 6개 있어 학생들이 실험 후 실험 도구를 씻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2명의 학생이 보통 2명에서 4명씩 조가 되어 실험하므로 넓은 책상이 12개 정도, 일렬로 혹은 흩어져서 배치된다. 대부분 실험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학교에는 과학 선생님 외에 조수 선생님(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이 적어도 세분은 있어 실험 도구 준비를 돕는다. 실험실은 안전이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비상구가 반드시 있고, 학생들이 가방을 아무 데나 놓아두는 바람에 걸려 넘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가방을 따로 모아 두는 선반 같은 것도 있다. 요즘은 웬만한 문서 작업은 학생들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실험실에도 컴퓨터가 15대 정도(벽 쪽으로 쭉 돌아가며) 들어가 있는 곳도 있다.



그림 1. 과학실



그림 2. 미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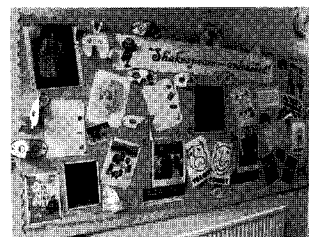


그림 3. 영어와 게시판



그림 4. 체육관 탈의실

\*영국 홀트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영어과 교실은 8개가 있는데, 영국은 교과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다른 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책을 나누어 줬다가 다시 걷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는 따로 선생님들만이 사용하는 캐비닛, 불박이장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노트(영국은 학생들이 쓰는 노트, 종이 같은 걸 모두 학교에서 준다.), 교과서를 보관할 수 있다.

음악실은 2개가 있는데 주로 노래나 합주를 할 수 있는 큰 교실이 있고, 컴퓨터가 30대 가량 설치되어 있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문서 작업, 키보드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책상이 배치되어 있는 교실이 하나 더 있다. 6개의 작은 연습실에서는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등 악기 연습을 그룹별, 개인별로 할 수 있다.

언어과 역시 따로 건물이 있고, 선생님들이 쓰는 사무실, 그 주위로 8개의 교실이 있다. 4개의 교실은 컴퓨터실로, 학생들이 헤드폰을 꼰고 듣고,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

테크놀로지 건물은, 요리, 재봉, 목공예, IT, 플라스틱공예실이 다 들어가 있다. 학생들은 한 학기는 요리, 그다음 학기는 재봉, 그다음은 목공예... 이런식으로 시간표가 짜져서 배우게 되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과목을 즐겁게 배우는지 알 수가 있다. 특히 목공예실은 전문 목수가 근사한 가구 하나쯤은 거뜬히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기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전기 사포, 전기톱, 전기 드릴 등), 플라스틱 공예실도 미술품 오븐 같은 전문적인 도구들이 많다.

그 외, 지리학과(7개의 교실), 역사학과(6개의 교실), 회화나 조소를 주로 하는 미술실,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upport unit(따로 작은 건물이 있고, 보조교사들까지 속해 있다), 대강당, 탈의실이 옆에 마련되어 있는 체육관 2개가 웅기종기 모여 있다. 80년에 걸쳐, 필요해 의해 건물들이 세워졌고, 물론 꾸준한 개조 작업을 거친 시설들이다.

영국은 수준별로 아이들을 나누어 가르치기 때문에, 레벨이 낮은 반은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교실 반만 한 크기의 교실들도 꽤 있다.

## 2. 나는 어디에 속하게 되나



그림 5. 공예실 수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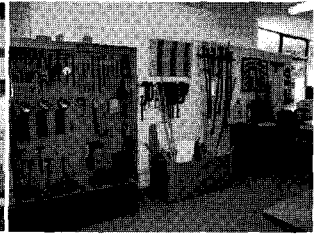


그림 6. 목공실



그림 7. 재봉실



그림 8. 요리실

교실을 이동한다 함은 결국 내가 하루종일 머물게 되는 교실이 없다는 말도 된다. 레벨별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한 반 아이들이라도 수업이 시작되면 전부 흩어져서 다른 반 아이들과 섞여서 수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출석을 체크하고, 짙막한 담임 조회를 하는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교실은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 수학교실이 될 수도 있고, 영어교실이 될 수도 있다), 그 교실 한쪽에는 '반 게시판'이 있어서 반과 관련된 정보가 전시된다. 아이들은, 다음번 생일은 누구? 그런 색선도 만들고, 특별활동 시간표, 학급 단체사진 같은 것들로 게시판을 예쁘게 꾸민다. 교실의 나머지 공간은 수학 교실이면, 아이들이 수학과 관련해 만든 포스터나 프로젝트로 제출한 숙제, 수학과 관련된 정보 같은 걸로 전시한다. 흩어져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홀해 질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반의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것은, 해리포터 책에 나온 것처럼 하우스에 속해서 포인트를 많이 모으기 위해 반별로 경쟁하는 것이다. 물론 교과 수업 외에 점심시간, 방과 후 특별활동도 아주 많다.

## 3. 전시물과 알림판

각 건물에 들어서게 되면, 내가 어느 과목부서에 왔는지 단번에 느낄 만큼 전시물들이 잘 되어 있다. 각 과목을 상징하고, 혹은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전시물은 학생들이

하우스 경쟁을 통해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하기도 한다. 선생님들이 직접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함부로 의자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영국에서 학생들은 책상, 의자, 어디도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하우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면 하우스별 알림판을 보면 되고, 학년별 행사를 알고 싶으면 학년별 행사 알림판을 체크하면 된다.

#### 4. 교실이동 수업의 장단점

학생 몇몇을 불러 인터뷰를 해 보았다. 요리 수업이면 직접 칼질을 해야 하고, 목공예 수업이면 톱질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상, 배움의 질에 관한 언급은 차치한다. 아이들은 매 수업이 끝나고 산책 겸 바람을 쐬며 5분 정도 걷는 게 머리카락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영국학교들은 단층 건물이 넓은 대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산책 겸 걷는다'고 할 수 있다.). 교실마다 분위기가 다르니 덜 지겹다고도 했다. 또한, 과목마다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교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 역시 이 아이들의 의견에 백 프로 동의한다.

조그만 사무실에 과목 선생님들만 계신 것도 좋다고 했다. 사무실에 찾아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훨씬 친근하고 거리감이 없다고 했다.

선생 입장에서,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려운 점은 이렇다. 착실한 아이들은 문제 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교실을 이동하는 시간이 마냥 이다. 늦어도 서두르는 법이 없어서, 수업에 늦는 아이들은 항상 늦는다. 이런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루는 게 선생으로서 '일'이 된다. 수업을 하다 보면 1, 2분 더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시간 관리를 늘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다음 수업에 늦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가 늦게 끝내면 다른 선생님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고, 수업을 일찍 끝내면 떠들며 이동하는 아이들이 다른 반에 피해를 주게 되어 그것도 좋지 않다. 또한, 한 학급이 다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섞여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수업을 그야말로 '땡땡이' 치는 아이들을 '잡아내는' 것도 선생으로서 염두에 둘 일이다.

그리고 이동 수업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안전문제이

다. 한꺼번에 아이들이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복도에 '교통체증'이 생기게 되는데, 남학교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넘쳐나는 남학생들이 일부러 서로 부딪히며 장난치는 걸 감독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할 정도인 곳도 있었다. 그래서 학교는 동선을 고려해 어떤 계단은 올라가기만 할 수 있는 곳, 어떤 계단은 내려갈 수만 있는 곳으로 분리해 놓기도 했다. 비가 올 때는 교실을 이동하면서 비를 몽땅 맞고 수업에 들어와, 축축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기도 한다.

#### 5. 과도기 프로그램

한 학년에 두 반 정도 있는 규모의 초등학교를 다니다 천명이 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해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일은 7학년 아이들에게 쇼크에 가까운 경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국 학교는 이 과도기를 아이들이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6학년 초쯤 부모와 함께, 학교가 끝난 시간에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Open Day라고 한다). 각 과목 부서 선생님들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부모들과 학생들을 맞이하고 질문에 상세하게 답을 해준다. 과목 중 수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퍼즐을 꺼내 놓기도 하고,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준비해 이리이러한 공부를 한다고 설명해주기도 한다. 8학년 학생 자원봉사자를 받아 안내를 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한, 학년 주임은 주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차 7학년이 될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본다. 학교를 갈 때는 되도록이면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7학년을 데리고 가서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7월쯤 다시 부모와 학교를 방문해 미래의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같은 반 친구가 될 아이들을 만나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 3일 후쯤 정식으로 학교에 등교해 실제로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연습을 해본다. 이때는 10학년 자원봉사 학생들이 이들을 인솔해 데리고 다닌다. 마지막 담임 선생님과 갖는 2시간 정도는 여러 게임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학교 지도를 들고 다니며, 음악실의 문 색깔은 무엇인가, 식당 옆 복도에 있는 옷걸이의 개수는? 같은 문제를 풀어보기도 한다. 이렇게 세 번을 미리 경험해 보고 입학하게 되면 처음 며칠은 10학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는다.

#### 6. Shadowing

Shadowing은 말 그대로 누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것이다. 선생코스 중에는 ‘선생의 하루’가 실제 어떤지 관찰해보라고 하루 종일 선생 shadowing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관찰하기 위해 학생 shadowing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다른 과목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체육을 방금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온 아이들이 수학 수업에 들어와 집중하는 게 어떤 건지 직접 느껴 보라는 의도이다. 내 수업에서는 말썽만 부리는 아이가, 경험 많은 다른 선생님 수업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shadowing의 하나이다. 내 앞에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하루를 이해해보면 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생인 나도 다음 수업을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가방을 썼다 풀었다 하며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바쁘고 정신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똥똥한 아이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음악 시간이면 악기 연습도 해야 하고, 과학 시간이면 실험도 해야 하며, 공예 시간이면 톱도 쓰고 칼도 쓰고 해야 되는데(영국은 미술에 필요한 도구도 전부 학교에서 준다), 어떻게 한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지요?” 교실을 옮겨다니며 받는 수업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분명하다. 단, 듣기만 하는, 입시만 중요시되는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 위주의 과목을 즐기며 수업을 할 때 진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 학교가 풀어야 할 숙제 아닐까.